

선공은 '인랑' 방학편 '신과함께2' 후공은 '공작'

(25일 개봉)

(8월 1일 개봉)

(8월 8일 개봉)

190억 '인랑' 165억 '공작' 썬의 전쟁 1편 흥행 '신과함께2' 마동석 흥행 키 '인랑' '공작' 남북의 과거·미래 차별화

7월로 접어들면서 여름시즌 한국영화 빅3의 흥행 대결이 본격 시작됐다. 동시에 사활을 건 머니게임의 맛이 올랐다. 이전에 보지 못한 스케일과 이야기로 무장한 대작 3편이 일주일 간격으로 개봉하면서 작품을 기획한 제작사와 비용을 댄 투자배급사는 물론 감독과 배우 할 것 없이 긴장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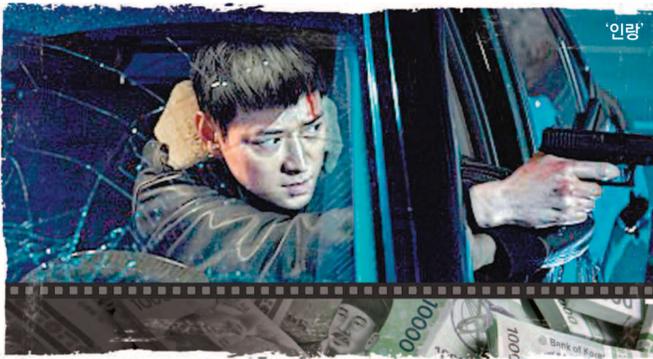
●택일 위한 물밑전쟁

25일 '인랑'을 시작으로 8월1일 '신과함께:인과 연'(신과함께2), 8월8일 '공작'이 순차 개봉한다. 개봉일 선정은 흥행 과녁을 맞히기 위한 첫 걸음. 때문에 날짜 선택을 두고 투자배급사들의 물밑 전쟁도 치열했다. '인랑'이 문화의 날인 7월 마지막 수요일을 택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면, '신과함께2'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의 중심을 겨냥한다. 두 영화의 초반 대결이 한풀 꺾인 뒤 '공작'이 나서는 구조다.

특히 제작단계부터 2018년 여름 개봉이 목표였던 '신과함께2'와 '인랑'은 일찍부터 개봉일 선택에 집중해온 것도 사실. '신과함께2'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여름 텐트폴 영화 입장에서 8월1일은 누구나 잡고 싶은 날짜"라며 "여름휴가의 절정시기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순제작비 200억원 안팎.. 썬의 전쟁

'인랑'의 순제작비는 190억원에 달한다. 마케팅 비용까지 더하면 총제작비는 더 늘어나지만 순제작비로만 따지면 600만 이상



모아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순제작비 165억원의 '공작'도 최소 48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갈 길 먼 두 영화와 달리 '신과함께2'는 여유로운 상황. 1~2편 당시 촬영에 순제작비 350억원이 들었지만, 1편의 성공으로 이미 전액 회수했다.

물량공세만큼 볼거리도 '역대급'이다. 일단 '신과함께2'는 지옥의 세계를 넘어 주인공 공하정우·주지훈·김향기의 1000년 전 과거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공작'은 알려지지 않은 북한 내부의 모습을 구현한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세트와 미술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고 대만 로케이션도 진행했다.

2029년 배경의 '인랑'은 SF액션 장르답게 새로운 공간을 창조했다. '인랑' 관계자는 "한 번도 본적 없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해서 두 곳의 대형 세트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각기 다른 관람포인트

'공작'과 '인랑'은 남북한 이야기이지만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르다.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벌어진 흑금성 사건을 소재로 한 '공작'은 실화를 충실히 따른다.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남북, 북미회담의 세계적 이슈 속에 분단

국가에 사는 우리의 현재, 과거를 고민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남과 북의 첩보원 역의 황정민, 이성민이 만드는 묵직한 이야기가 중장년 관객에 깊이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정우성의 '인랑'은 남북한 통일 준비 5년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반도를 그린다. 특히 김지운 감독이 만든 새로운 세계를 향한 관심이 상당하다. '신과함께2'는 1편 분위기가 그대로 남녀노소, 가족관객을 겨냥한 가운데 새로 투입된 마동석이 '키'를 쥐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

13

2018년 7월 3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반짝반짝' 김소현

연기자 김소현의 미모가 반짝반짝 빛난다. 첫 번째 일본 팬미팅을 준비중인 그는 속 눈썹을 한껏 올리고, 눈 밑에는 팻을 발라 반짝이는 효과를 연출했다. 트레이드마크인 청순미는 환한 웃음으로 더욱 돋보인다. 팬들은 "일본 팬들도 반할 미모" "팬미팅 성공적 마무리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김소현 #일본 #굿모닝

내마음에 작품하나

고봉수 감독-영화 '희극지왕'

콧물 줄줄 흘리던 저우싱츠 코미디 중 가장 웃긴 명장면

남을 웃기길 수 있는 실력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길러지기도 한다. 코미디가 좋아 술한 코미디 영화를 섭렵하고, 그 안에서 활약하는 배우와 감독의 재능을 관찰하는 일은 코미디를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는 거치는 코스다.

능청스러운 웃음으로 '웃픈' 이야기를 버무린 영화 '튼튼이의 모험' 연출자 고봉수 감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힐타보이즈'에 이어 1년 만에 장편영화를 내놓은 감독은 지금까지 코미디 장르로만 200여 편의 단편·독립영화를 만들었다. 코미디에 갖는 애정이 특별한 그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작품이 중국배우 저우싱츠(주성치)가 주연과 감독을 맡은 '희극지왕'이다.

주인공 사우는 배우가 꿈인 엑스트라이다. 센스도, 연기력도 부족한 인물. 시체 역을 맡고서도 걸어 다니는 연기를 한 탓에 그나마 몸담았던 촬영 현장에서조차 쫓겨나 마 율회관에서 무료 연기강습을 시작한다. 어느 날 그 앞에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피우(장바이즈)가 나타난다. 피우는 손님 앞에서 순진한 학생 흉내를 내고 싶으면서 그런 연기를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곧 이들 사이에 웃을 수만은 없는 사랑이 펼쳐진다.

고봉수 감독은 저우싱츠에 영향 받은 사실을 감추지 않는다. 웃길 땀 확실치 웃기고, 울릴 땀 더 확실치 울리면서 삶의 희로 애락을 담은 저우싱츠 영화의 길을 고봉수 감독도 걷고 있다.

고봉수 감독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명장면도 '희극지왕' 안에 있다. 저우싱츠가 콧물을 흘리는 모습은 전 세계 모든 코미디 영화를 통틀어 가장 웃긴 장면이 아닐까. 그가 시도한 콧물 효과를 꼭 배우서 언젠가 쓰고 싶다"고 했다. 이해리 기자

편집 | 인도영·김형조 기자

이병헌, 영어·일어 OK!

7일 첫 방 tvN '미스터 션샤인'서 그동안 갖고뒀던 외국어실력 공개

배우 이병헌이 7일 첫 방송하는 tvN 토 일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함께 구사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이병헌은 해외활동하며 평소 꾸준히 갖고뒀던 외국어 실력을 9년 만의 안방 복귀작에서 모두 보여주는 셈이다.

극중 이병헌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신분차별을 견디다 못해 미국 군함에 승선한 뒤 미국 군인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다. '검은 머리의 미국인'의 모습을 하고 능숙한 영어를 소화한다. 또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이 1890년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여서 일본어에도 능통하다.

한 드라마에서 영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이병헌에게 가능하다. 이병헌은 일본에서 한류스타로 주목받으며 드라마 관련 행사와 팬미팅 등에서 일본어로 현지 팬들과 직접 소통했다. 2009년 방송한 KBS 2TV '아이리스'에서는 1분 이상의 일본어 대사를 NG 없이 한번에 소화해 당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영어도 능통하다. 2009년 영화 '지.아이.조-전쟁의 서막'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해 영어 연기를 선보였다. 이후 '지.아이.조' '레드:더 레전드'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미스컨덕트' '매그니피센트' 등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분량을 늘렸다. 2011년 일본드라마 '외교관 쿠로다코사쿠'에서도 모든 대사를 영어로 소화했다.

이병헌이 '미스터 션샤인'에 출연하게 된 배경에는 영어 실력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 제작사 화앤답픽쳐스 윤희립 대표는 "남자주인공은 영어를 잘하는 배우이길 바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백슬미 기자

'비를 부르는' 가수들의 여름전쟁

음악만큼 날씨나 계절에 민감한 장르도 없다. 장마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가수들이 잇달아 비와 관련된 노래들을 선보이고 있고, 대중들은 때맞춰 '비가 오면 생각나는 노래'들을 찾아듣고 있다.

그룹 마마무는 새 미니앨범 발표에 앞서 수록곡 '장마'를 1일 발표하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내놓은 곡마다 음원차트 1위를 기록하는 마마무에게 '장마' 역시 각종 음원차트 1,2위를 기록 중이다.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박기영은 6월30일 정발비처럼 길고 힘겨운 이별의 이야기를 담은 '레인

레인 레인'을 발표했다. 걸그룹 여자친구의 멤버 유주도 6월29일 첫 솔로음반을 발표하며 비를 노래했다. 솔로곡 '러브 레인'은 사랑을 마주한 여자의 마음을 비에 빚낸 곡이다. 가수 미교는 6월28일 첫 번째 미니앨범을 발표하며 '빗소리'를 앨범 제목과 타이틀 곡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장마철 시즌송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빗소리'는 미교만의 쓸쓸하면서도 애잔한 목소리와 이별에 대한 가사가 잘 어울려졌다.

장마철을 타깃으로 한 노래는 아니지만 비와 관련된 옛 노래들도 덩달아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공개된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는 이미 장마철 대표 시즌송이 돼, 차트에 재진입했다. 헤이즈는 최근 SNS를 통해 "비야 사랑해"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이 다시 찾아 듣는 노래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폴킴의 '비'와 윤종현의 '소나기'도 요즘 자주 음원차트에 오르내린다. 흥겹고 빠른 댄스곡들이 무더운 여름에 주류를 이룬다면 그에 앞서 찾아온 장마철에는 비와 관련된 노래들도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라이프 온 마스' 결방의 딜레마

(OCN 토일드라마)

제작진 "완성도 위해 7·8일 결방" 시청자들 "스토리 흐름 끊겨 불만"

케이بل채널 OCN 토일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가 7·8일 결방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2일 "1988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최대한 정교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다. 야외촬영 분량이 많은데 날씨로 인해 촬영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tvN에서 방송된 '나의 아저씨' '슬기로운 감빵생활' '도깨비' '응답하라 1988' 등도 완성도를 이유로 결방했다.

이 같은 결방을 두고 제작진은 "완성도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시청자가 무조건 반기는 상황은 아니다. 결방은 시청자의 몰입을 방해하고, 이야기 흐름도 도



'라이프 온 마스'

중에 끊긴다는 지적이 많다. '본방사수'를 기다린 시청자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결방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차기 드라마 방송 날짜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 같은 시청자 불편에도 제작진의 자체 결방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시간에 쫓기다 보면 방송사고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